화성시가족센터-홍익디자인고등학교 다문화동아리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그리다꿈 종강식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홍익디자인고등학교 다문화동아리 '아울러'와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월 2회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한 미술멘토링 프로그램 '그리다꿈' 종강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미술멘토링 그리다꿈 종강식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마지막 9회기 작품을 멘토-멘티가 만나서 나만의 실내화 만들기를 진행해 더 의미가 컸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 실내화 만들기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 만든 실내화를 교환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고 아이들이 만든 실내화의 경우는 센터에서 행사나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 전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이후 오후 시간은 종강식으로 멘토와 멘티는 서로에게 줄 비즈팔찌 만들기, 사탕목걸이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편지를 써서 선물을 교환했다.

멘티 이다빈은 사업발표 후 소감을 말하면서 "선생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미술학원은 재미없었는데 선생님이랑 이 활동을 할 때는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것도 재미있었어요. 오늘 선생님 주려고 편지도 써 왔는데 선생님도 저한테 직접 만드신 제 캐릭터 선물을 주었어요. 나중에도 또 만나고 싶어요" 라고 전했다.

또 멘티 정윤서 부모님은 "아이가 미술을 좋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신청 때 바로 신청을 하였는데 아이가 수업 때마다 너무 즐거워하고 토요일 수업시간만 되면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를 예뻐해주셨고 센터에서도 여러 미술 준비물들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중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밝혔다.

멘토들은 내년 멘토링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며 김지헌 동아리부장은 "처음 1학년이 되어 동아리 모집 때 알게되었던 그리다꿈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3년이 되었고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도 멘토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이 동아리 활동을 말할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의미있는 순간이었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미술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라고 전했다.

이후 미술멘토링 그리다꿈에서 아이들이 그린 작품을 모아 나만의 동화책으로 제작하고 추후 화성시 관내 육아나눔터, 센터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봉호 기자
hazy109upda@naver.com